

5. 왜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가? Why Do Missionary Member Care?

간단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 이유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기 개발을 하도록 도우며,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하며, 장기간 선교를 지속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은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일부분으로서 선교사 멤버케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영적인 면에서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간의 갈등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을 조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하게 된다. 멤버케어는 자국 문화 내에서 섬기는 사람 및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멤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
본국에서 섬기기
적의 영역에 침입하기
마지막 때
현재
다른 이유들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기를 권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그[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행 1:8)고 말씀하셨다.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은 모든 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듯이(행 13:1-3)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파송한다 (행 13:1-3). 바울과 바나바는 후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보고하였다 (행 14:21-15:21).

선교사 멤버케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반드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삶과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을 도와 효과적인 사역과 삶을 살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악의 세력과 전투에 임하도록 돕는다.

선과 악 간의 싸움 The War between Good and Evil

국가의 군인들이 국가 간의 실제적/이념적 전쟁에 진입하듯이, 선교에 임한 기독교인들도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 간의 영적/이념적 전쟁에 돌입한다.

두 가지 형태의 전쟁에서 최전선의 모든 병사에게 본국의 지원 스태프가 존재한다. 두 전쟁에서 부상자가 공히 발생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가 물리적, 정신적, 감성적, 영적이든 간에 케어를 필요로 한다. 전장에서 부상병들이 케어를 필요로 하듯이, 본국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들도 동료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케어가 필요하다.

본국에서 섬기기 **Serving at Home**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준비시키던 훈련 과정에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하고,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았기에 (10 절),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르실 때 농담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른 문화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마 10).

- 그들이 채찍질하리라 (17 절)
- 너희를 넘겨 줄 때에 (19 절)
-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주며 (21 절)
-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22 절)
- 너희를 박해하거든 (23 절)
- 저 동네로 피하라 (23 절)

예수님께서서는 ‘만일’ 이 아니라 ‘할 것이다’와 ‘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러한 일을 예상하셨음에 주목하자. 이러한 대접은 교회 목사와 본국 스태프 선교사 등, 자국문화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자신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들에게 일어난다. 그러한 개인들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

마가는 열두 제자가 두 사람씩 떠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음을 기록하였다(막 6:7-13).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였고 가르쳤는지를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조용한 곳에 데려가 쉬게 하셨다(막 6:30-32).

다른 72 인의 연수 세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두 명씩 앞서 보내셨다(눅 10:1-16). 역시 아무도 혼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 72 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성공적인 사역을 보고하였다(막 10:17).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그들 자신의 문화 안으로 파송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혼자 가게 하지 않게, 최소한 둘이 가도록 하셨다.

적진에 돌입하기 **Invading Enemy Territory**

수년 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가 경험했던 바를 편지로 보냈다. 여기에 그가 기록한 것들이 있다. 본국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병행하여 주목해 보라(고후 11 장).

- 나는 매질을 수없이 당하였고(23 절)
- 옥에 갇히기도 수 없이 하였으며(23 절)
- 거짓 형제로부터 위기에 처해보았고(26 절)
-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였으며(26 절)
-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25-26 절)
- 여러 번 굶임 없이 이동했다(26 절)

이에 더하여 본국을 섬기는 공통점과 함께 바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 세 번 파선하고(25 절)
-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25 절)
- 여러 번 주리고(27 절)
-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27 절)
-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28 절)

오늘날 선교사들의 삶에 개인들로서 직면하는 “이리들”이 있다. 말라리아, Dengue, 기생충, 우울증, 불안, 갈등, 탈진, 비탄, 죄책감, 유혹들, 도전, 동료의 횡사, 악의 공격과도 같은 “이리들”이 있기에 선교사들은 누군가가 그들 곁에 서 있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그 전투가 끔찍했고 자신들이 불안했고 낙담했으며 그 갈등은 참혹했다는 보고를 기대받으며 보고하도록 허락받는다. “전쟁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다. 선교사들은 선과 악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으며 그들의 전쟁은 심지어 더욱 심각하기도 하다. 군인들은 “전쟁은 지옥이야,” “처절했어”라고 보고하도록 기대받는다. 그러나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비슷한 표현을 하게되면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다고(믿음이 적다라고) 여겨지곤 한다. 어떤 선교사들은 심지어 그렇게 믿고 침묵한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그들 내면의 전쟁을 겪는 동안 더 많은 멤버케어가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지옥의 세력과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요즘 군대는 부상병들에게 의료적이고 심리적인 케어로 도움을 제공한다. 크리스천들은 부상당한 선교사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가족, 친구, 공동체, 교회로부터 떨어진 낯선 타문화권에서 신체적/이념적/영적인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외롭다. 사회적 지원의 부재와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와 낯선 문화권에서의 삶 이러한 약점들을 왜 사단이 노리지 않겠는가?

마지막 때 End Times

하루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한분께 나아와 마지막 때와 그 징조에 대해 여쭙보았다 (마 2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하셨다.

-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5 절)
-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6 절)
-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7 절)
-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7 절)
-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9 절)
- 예수로 인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이며(9 절)
-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10 절)
- 서로 배반하며 증오할 것이며(11 절)
- 불법이 성하리라(12 절)

그런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 절). 마태복음 24 장의 나열된 항목들을 읽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속적 사역과 그 사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겹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에 주목하였다. 심지어 기독교인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를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길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고했음을(요 16:1-4). 기억나게 하려 함이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돌봄의 필요가 증대될 것이다.

현재 Today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선교사 감소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위의 군대 비유로 돌아와 보면, 오늘날 선교사들은 그들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탈영하며 그 다음 임기에 재입대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손실은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기간 동안 죽었기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다. 다른 선교사들도 은퇴기에 접어들었기에 복귀하지 못한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선교단체 밖의 있는 자와의 결혼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복귀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실은 손쓸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손실은 예방이 가능하다. 많은 선교사들조차도 그들의 결혼생활 문제로, 가족 문제로, 그들 단체와 팀 문제로, 현지문화 문제로—또는 개인적인 온갖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선교사역을 떠난다.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큰 연구중 두 연구는 예방 가능한 선교사 감소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1995년 세계복음주의 선교위원회는 ReMAP1(선교사 감소 줄이기 프로젝트)을 시작했다. 이 연구는 14 개국에 파송된 2 만여명의 선교사들과 400 개의 단체들의 자료를 포함한다. *잃어버리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선교사 감소의 이유와 대책*, 최종 보고서가 1997년 발간되었고 400 페이지에 가까운 소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윌리엄 테일러에 의해 편집).

ReMAP2 (*보유 가치: 글로벌 관점에서 본 선교사 유지를 위한 최선책*)는 2003년에 시작되었고 2007년 발간되었다. Rob Hay, Valerie Lim, Detlef Blocher, Jaap Ketelaar, Sarah Hay 에 의해 쓰여진 이 연구는 22 개국의 4 만명의 선교사와 600 개의 선교단체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400 페이지가 넘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른 이유들 Other Reasons

물론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모든 이유들은 선교사를 돌보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중 몇가지가 아래에 열거한 것들이다.

-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요 13:34)
- 선교사들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멤버케어 돌봄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를 자원한다.
- 기타 그 외.

이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이유로 돕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동정심으로 돕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가진 풍요함에 대한 죄의식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신과 관계 전문가들중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직업 전선에 들어 가지만 그들 중에 선교사를 돌보기 위해서 직업 전선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독자를 위한 제언: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 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돌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나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것이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